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30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11.40원 (+4.40원)

KOSPI

5,438.87 (-21.59, -0.40%)

KOSDAQ

1,141.51(+4.87, +0.43%)

국고채 10년 금리

3. 915(+0.050%p)

Special Report

4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전쟁 이후: 달러와 이익이 시장 방향을 결정한다 [이재만]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두산그룹 포커스 [박승진]

New K-ETF 오피스 리츠+, K수출 TOP10 산업 액티브 [박승진]

김경환의 China Weekly 중국의 돌파구 [김경환]

기업분석

제테마 오버행 해소 눈앞, 수출 확대와 품목 다변화에 미국 진출까지 [김다혜]

산업분석

자동차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 발의의 의미 [송선재]

AI/인터넷 AI 에이전트, 대중화와 함께 경쟁 심화 [이준호]

Weekly

은행 국내 기관 은행주 순매수 확대 중 [최정욱]

철강금속 아시아 철강 가격 한동안 강세 지속 전망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흔들리는 센티먼트. 견고한 펀더멘털 [김록호]

에너지/화학 이란 전쟁 장기화 전망 우세 [윤재성]

2차전지 수급보다는 가격 [김현수]

디지털자산 클래리티 액트와 금리, 단기 불확실성 증가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팔란티어,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자율주행 밸류체인 실적 개선 속 성장 모멘텀 강화 [백승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키움증권, LG이노텍, 오리온, 삼양바이오팜, RFHIC, 더블유씨피, 제테마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3월 30일 | Global Asset Research

4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전쟁 이후: 달러와 이익이 시장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미국과 국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실제로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우려도 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① 금리를 인상할 경우 사모 대출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② 과거 전쟁 발생 당시 경기에 맞춰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경험(걸프전, 이라크전)이 있다. ③ 현재 미국 명목 중립금리는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사이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미국 Tech 기업들의 투자사이클이다. S&P500 Tech 섹터 CAPEX 증가율과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구글이 TurboQuant 발표 이후 반도체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AI 관련 수요는 기업/산업/정부로 확산 중이고 메모리 효율 개선은 수요 증가를 유도(비용 하락, 수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S&P500 반도체 업종 12개월 예상 PER 40배 수준에서 현재 19배로 급락하며 소프트웨어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소멸됐다. 소프트웨어 업종 12개월 예상 PER 현재 21배로 2020년 3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저점과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도체 빅사이클 하에서의 주가 고점은 영업이익률 정점과 유사한 시기에 형성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정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이익의 증감은 S&P500 Tech 섹터의 증가율이 결정한다. 해당 업종 내 영업이익률의 레벨 업을 기대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거 기업 이익 성장에 기반한 지수 장기 상승 추세에서 코스피는 월간 기준으로 최대 -12%(평균 -5%)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당 국면에서 일반적인 조정 기간은 1개월(최장 3개월)이었고, 상승 시 월간 수익률은 평균 +12%다.

비반도체 업종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과 달러인덱스] 변화를 기반으로 알파 전략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단 지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여부 보다는 달러인덱스의 상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① 기대인플레이션과 달러인덱스 동반 상승(미국과 이란 전쟁 지속): S&P500 에너지와 은행. 코스피 은행과 방산/지주. ② 기대인플레이션과 달러인덱스 동반 하락(전쟁 종료 및 휴전)으로 전환: S&P500 유틸리티, 제약/바이오, S/W, H/W. 코스피 기계, 증권, 제약/바이오, H/W 비중 확대가 유효한 전략이다.

2026년 3월 30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두산그룹 포커스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3/31)
- WON 두산그룹 포커스

WON 두산그룹 포커스: 주요 산업군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두산 그룹의 계열사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원자력, 반도체, 로봇 등 AI 밸류체인의 핵심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두산 그룹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AI 시대의 에너지원인 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지능 역할을 하는 반도체(두산, 두산테스나), 실행을 담당하는 로봇(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 등의 종목 구성은, 핵심 미래 산업을 하나로 담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합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이후 AI 밸류체인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한 두산 그룹의 성장 모멘텀에 집중 투자하며, 결과적으로 단순한 단일 그룹 테마를 넘어 현 시점의 국가전략 기술 관련 기업들을 포괄하는 것이 'WON 두산그룹 포커스'의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두산 그룹 소속 기업들인 '두산 그룹 유니버스'와, 이들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두산 생태계 유니버스'를 편입 대상으로 한다. 먼저 '두산 그룹 유니버스'에서 국가전략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을 핵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을 포함하여 유니버스 전체 비중의 90%를 배분한다. '두산 생태계 유니버스'는 과거 1년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후보군 중 수주·공급 계약, MOU, 주요 매출·매입처 관계 등 실질적인 사업적 협력 관계가 공시나 뉴스를 통해 확인되는 종목을 최종 편입한다. 전체 비중의 10%를 배분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확정한다.

ETF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조정 동일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두산 그룹 유니버스' 내에서 차세대 원자력, 첨단로봇·제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 각 25%의 비중을 우선 부여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4종목 이상일 경우 시가총액 상위 3종목에만 25% 비중을 부여하며, 나머지 '두산 그룹 유니버스' 종목은 합산 비중이 90%가 되도록 동일가중 방식으로 배분한다. 나머지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두산 생태계 유니버스'의 종목들은 동일가중 방식으로 개별 편입 비중이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두산 그룹의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를 극대화하면서도, 그룹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관련 산업 생태계 기업들을 함께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상장일(3/31) 기준의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 소재 및 지주사인 두산, 원자력 및 SMR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협동로봇 및 피지컬 AI 전문인 두산로보틱스가 25%의 비중을 할당받는 국가전략 기술 기업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두산테스나,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두산퓨얼셀, 무인화 기술을 보유한 두산밥캣이 '두산 그룹 유니버스' 기업들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 '두산 생태계 유니버스' 관련 종목군으로는 오리기술과 뉴로메카, 삼성전자, HD현대건설기계, 일진하이솔루스, 파미셀이 포함되어 총 10

개 기업으로 만들어진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의 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국가전략 기술 기업의 경우 25%의 비중이 Cap Rate 기준으로 적용되어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을 방지한다. 총 보수는 연 0.33%이다.

도표 1. WON 두산그룹 포커스 ETF의 종목 개요

ETF명	WON 두산그룹포커스
상장일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기초지수	iSelect 두산그룹 포커스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33%
구성종목 수	10종목 (‘26.2 월 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두산그룹 유니버스 : 국가전략기술 기업 (ex. 차세대 원자력, 첨단로봇·제조, 반도체·디스플레이) 각 25%, 나머지 3종목은 합산비중이 90%가 되도록 동일가중 - 두산산업 유니버스 : 합산비중이 10%가 되도록 동일가중
정기변경	연 2회 (매년 6월, 12월)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3월 30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오피스 리츠+, K수출 TOP10 산업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3/31)

- DAISHIN343 오피스리츠 플러스, ACE K수출핵심 TOP10 산업 액티브

DAISHIN343 오피스리츠 플러스: 주요 투자대상이 오피스 자산인 리츠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ETF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외국주권 등을 제외한 후, 일평균 시가총액이 천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종목을 대상으로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선정한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오피스 리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ETF 종목이 되겠다.

주요 투자대상이 오피스로 분류된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만약 구성 종목수가 10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스 내에서 일평균 시가총액 순으로 종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편입 대상으로 한다. 오피스 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량 리츠들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편입 종목들은 유동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기준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하며, 개별 종목의 최대 비중은 25%의 CAP Rate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월 마지막 영업일에 연 1회에 걸쳐 진행된다. 0.19%의 총 보수가 적용된다.

ACE K수출핵심 TOP10 산업 액티브: 국내 10개 수출 핵심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수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이다. 글로벌 산업 구조 하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상관계수 0.7의 유지 조건이 적용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 종목이 되겠다.

주요 수출 종목군 중에서도 1) 대체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반도체, 전력, 원전 등), 2) 풍부한 수주잔고 기반의 실적 모멘텀 보유 기업들(바이오, 방산, 조선 등), 3) 브랜드와 IP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덤과 소비를 이끌어내는 기업들(푸드, 뷰티, K Pop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비교지수인 'iSelect K수출핵심산업 지수'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14개 수출 관련 산업을 편입 후보군으로 정의한다. 이어 각 산업별로 수출, 글로벌 매출, 공급망 등의 키워드 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10개의 핵심 수출 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기 산업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1차로 추출한 뒤, 다시 키워드 점수를 적용하여 산업별로 상위 2개 기업씩 총 20개 종목을 최종 편입 대상(동일가중방식)으로 한다.

액티브 ETF인 만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스크리닝과 정성적 판단을 함께 조합하여 국면 판단에 따라 12개~15개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SK하이닉스, 원익IPS, HD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등이 상장일(3/31) 기준의 예상 편입 종목들이다. 비교지수 포트폴리오의 정기 변경은 연 2회(매년

6월과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진행한다. 총 보수는 0.19%이다.

도표 1. DAISHIN343 오피스리츠 플러스, ACE K수출핵심 TOP10 산업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DAISHIN343 오피스리츠플러스	ACE K수출핵심 TOP10산업액티브
상장일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KRX 프라임 오피스 리츠 지수	iSelect K수출핵심산업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19%	0.50%
구성종목 수	10종목	20종목
비중결정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동일가중방식
정기변경	연 1회 (매년 2월 마지막 영업일)	연 2회 (매년 6월,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3.30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의 돌파구

- **중화권 증시 가장 큰 압박 국면을 통과중, 2/4분기 4대 돌파구 부각 :** 3월 중화권 증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달러강세, 대내외 유동성 환경 위축과 수급 과밀을 소화하며 절대-상대 수익률의 부진이 당사 예상을 상회했다. YTD 수익률 기준 상해종합(-2.01%), 항셍(-3.02%), MSCI China(-8.23%), 항셍테크(-13.68%)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신흥국 대비 뚜렷한 아웃퍼폼에 실패했다. 우리는 상반기 전망 업데이트 자료(중국 자세는 낮고 하체는 단단, 3/9일 발간)를 통해 2026년 실적 기반 2차 강세장(리플레이션/공급개혁)과 구조적-순환적 우위(정책/편입비중/내구성/사이클)에 대한 전망을 유지했으나, 단기 수급과 투자심리는 여전히 악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과 수급 구조에서 홍콩 대비 내구성을 기대했던 본토 증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테크(TMT)-수출주(선진제조)-원자재' 관련 업종의 편입 비중이 70%를 상회한 가운데, 1/4분기 대외 유동성 축소와 로컬 기관의 리밸런싱에 취약했다. 큰 틀에서 2026년 중국 PPI 상승 사이클 진입(초과 유동성에서 실적장세 전환)에 따른 성장주와 가치주의 재균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기존 주도 업종의 새로운 모멘텀(산업/기술/실적) 공백 속에서 중국 시클리컬(구경제)-금융/소비 등 소외 업종에 대한 확신 부족이 1/4분기 중화권 증시의 경쟁 우위와 차별화를 제한했다.**다만, 우리는 중화권 증시가 가장 큰 압박 국면을 통과하고 있으며, 2/4분기 대외 환경 악화(유가-인플레이션-무역)에 대한 내구성과 자체적인 경쟁 우위가 부각되며 반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중화권 증시를 지지하는 구조적인 호재(①내수-부동산 장기 저점/②리플레이션/③제조업-공급망 고도화/④AI/테크 혁신/⑤가계자산 리밸런싱)는 변함이 없으며, 단기 변동성 구간은 상존하나 대내외 조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2/4분기 증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며, 로컬 투자자부터 지정학 리스크 다발(多發) 환경에 점차 적응할 것으로 판단한다.
- **첫째,** 2/4분기 고유가와 대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중국의 '내구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동 사태 이후 중국의 취약점인 원유 수입 의존도(약 70%)와 호르무즈 해협 수입 비중(2025년 35%)은 2/4분기부터 중국 외교력 우위와 정책 대응 여력(전략비축유/수입다변화/가격통제)으로 일부 상쇄되고,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Mix(석유+가스 비중 25% vs석탄+신재생+원전 비중)와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중기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가 발휘될 것이다.
- **둘째,** 수출 경쟁력과 공급망 우위는 계속 유효하다. 2025년 이후 내수 경기 하락을 완충했던 수출 호조세는 3-4월 단기 수요 충격이 부각될 수 있으나, 상반기 지역과 품목 다변화 기반의 수출 경쟁력 유지가 유효하고, 주요국 대비 공급망 안정성과 단가 우위가 완충 요인(펜데믹 사례)이 될 수 있다. 2/4분기 중국 부양책 강화와 내수 회복 이전 중국 경기와 실적 충격은 제한적이다.
- **셋째,** 중국 산업 구조와 경쟁력 관점에서 고유가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비축 등 환경은 결국 중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 및 증시 매출 구조상 광업, 제조업(소재/자본재), 유틸리티, 에너지 관련 비중이 높다는 점은 결국 2026년 실적 강세장(PPI 상승+재고사이클+반내권)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대내외 사이클 반등과 경쟁 우위가 검증된 ESS, 전기차, 전력망, 건설기계, 비철금속, 화학, 조선, 방산 등 에너지-공급망 안보 분야의 글로벌 MS는 2026년에 더 상승할 수 있다.
- **넷째,** 2/4분기 재정 집행과 내수 부양책이 본격 강화될 전망이다. 2026년 중국 재정 집행은 2025년 대비 늦은 2/4분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4월말 정치국회의(경제 주제)를 통해 단기 대응이 더 강화될 수 있다. 2/4분기 PPI 상승률의 조기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인민은행의 물가 용인과 내수 회복을 위한 확장형 통화정책 기조는 유효할 전망이다. 2026년 중국 물가-부동산-신용-초과저축-정부 투자 사이클이 장기 침체를 탈출하면서 실제 내수 부양 효과는 2025년 대비 클 것이다.
- **중화권 증시 전망 :** 2/4분기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 중화권 증시는 상반기 유동성 기반의 상승 폭 자체는 낮아졌지만, 하반기 실적 장세 전환(2026년 이익 중국 +12-14%/홍콩 +9%-10%)과 2027년까지 구조적인 리레이팅 (기술/제조업/CapEX/) 기대가 유효하다. 현재 주가는 여전히 당사 상반기 예상 밴드인 CSI300 4,000pt-5,250pt, 항셍H 8,100pt-10,350pt의 하단 수준이며, 밸류에이션은 신흥국 내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대비 여전히 과소평가 받고 있다. 상반기 대외 악재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구간을 비중확대 기회로 계속 제시한다. 연간 최선호 지수는 CSI300과 심천 창업판(ChiNext) 지수를 유지한다.

2026년 03월 30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제테마 (216080)

오버행 해소 눈앞, 수출 확대와 품목 다변화에 미국 진출까지

Not Rated

현재주가(3.27) **8,1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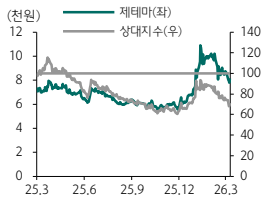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41.51
52주 최고/최저(원)	10,890/5,400
시가총액(십억원)	302.9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37,209.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36.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9
외국인지분율(%)	5.66
주요주주 지분율(%)	
김재영 외 16 인	29.2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순이익(십억원)		
EPS(원)		
BPS(원)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33.2	46.0	58.7	64.0
영업이익	2.3	4.0	5.3	9.4
세전이익	10.9	2.4	3.4	(0.9)
순이익	10.9	2.0	16.0	2.4
EPS	308	55	448	67
증감율	흑전	(82.14)	714.55	(85.04)
PER	33.22	119.16	17.37	115.75
PBR	6.66	4.08	3.77	3.63
EV/EBITDA	64.21	35.90	27.72	21.40
ROE	22.65	3.51	24.38	3.19
BPS	1,536	1,608	2,065	2,138
DPS	0	0	0	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미용 의료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에스테틱 기업

제테마는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리프팅실 등 다양한 미용 의료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김재영·남정선 공동대표가 2009년 설립했다.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더톡신은 2017년 영국 국립기관에서 정식 도입한 균주로 제조해 균주 출처가 명확한 게 특징이다. 제테마는 2025년 연결 매출 769억원(YoY+12%), 영업이익 38억원(YoY-7%, 영업이익률 5%), 지배주주순이익 -67억원(적자전환) 기록했다.

필러 중국 온기 반영, 톡신 튀르키예 허가 및 중국 임상 3상 업데이트

작년 하반기 중국 판매를 시작한 히알루론산 필러 에피티크는 올해 바디 필러 수요가 더해지며 온기로 작년의 3배 매출 반영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신청한 더톡신의 튀르키예 품목허가가 적어도 하반기에는 승인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지 대리점 BERK ILAC과의 계약에 따라 올해 약 50억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 2분기엔 톡신의 중국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소식이 업데이트될 것이다. 그 밖에 이미 신청 완료된 톡신의 태국과 필리핀 품목 허가가 연내 승인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스킨부스터 리바인을 통해 품목 다변화 및 미국 시장 개척 시작

올해 제테마는 한미약품 스킨부스터 유통을 통해 미국 미용 시장에 진출한다. 2025년 12월 회사는 한미약품과 MOU를 체결해 관절치료제 '히알루마'를 미용 용도로 변경한 스킨부스터 '리바인(Re Vine)' 미국 판매권을 얻었다. 제테마 USA는 리바인을 미국 Medspa 채널 중심으로 영업할 예정이며, 예상 런칭 시기는 올해 3분기다. 제테마가 리바인 미국 유통을 준비하며 현지 영업력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 미국 임상 2상이 완료된 더톡신의 향후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다. 유통 품목으로 스킨부스터를 선택한 것도 성장하는 non-HA필러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미약품의 스킨부스터에 더해 회사는 품목 다변화를 위해 ECM 스킨부스터 국내 유통을 검토하고 있다.

전환사채 7/6 만기로 오버행 해소, 연간 가이던스 1천억원 제시

그동안 제테마에 대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오버행 리스크가 오는 7월 6일 전환사채 만기로 해소될 전망이다. 제테마는 지난 23년 7월 6일 운영 및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년 만기 전환사채 560억원을 발행했고, 현재 미전환 사채는 202억원이다. 오는 7/6 전환사채 만기일에 대비해 회사는 사옥 매각을 추진해 상환 준비중이며, 만기 후에는 전환사채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제거되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에서의 턴어라운드도 기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회사의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1천억원이며, 현재 제테마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원 수준이다.

2026년 03월 30일 | 산업분석_Issue Comment

자동차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 발의의 의미

Overweight

Top Picks

*CP 2026년 03월 27일

현대모비스 (012330)

BUY | TP 570,000원 | CP 408,500원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이 발의됨

미국 상원의원 2명(공화당 톰 코튼과 민주당 척 슈머)이 일명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행정 기관이 특정 국가(적대국)에서 제조된 무인 지상 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s)을 구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금지 대상은 원격 감시 차량, 자율 순찰 기술, 모바일 로보틱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고, 시스템 내 카메라/센서 컨트롤러 등 부속품도 포함한다. (2) 규제 대상 국가와 기업은 미국 연방 법전(Section 4872(f)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에 명시된 국가(중국/러시아/북한/이란) 및 대상 국가에 본사/주소지를 둔 기업, 대상 국가의 영향력/통제를 받는 기업, 그리고 그 자회사/계열사 등을 말한다. (3) 금지 사항은 미국 행정 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신규 구매할 수 없고, 기 보유 시스템도 1년 후 운영이 금지되며, 연방 정부의 보조금/계약금도 해당 시스템의 구매/운영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다만, 국방부/국무부 등에서 특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적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다운로드할 수는 없다. (5)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 뒤부터다.

한국의 자동차/로봇 생산 밸류체인들에게는 기회가 커짐을 의미

일단 이 법안은 발의된 것일 뿐, 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로봇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미국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있다. 하나증권은 기술 수준, 시장 규모, 생산/판매 밸류체인 등 감안할 때 글로벌 로봇 산업의 패권은 미국-중국 양 진영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양 진영의 경쟁 구도상 생산/판매 밸류체인이 공유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는 미국 로봇 산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한국의 생산 밸류체인들에게 기회를 의미하고,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 Boston Dynamic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밸류체인을 활용하기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기계 및 이동성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생산 능력(원재료 수급/가공, 부품/시스템 제조, 원가/생산 관리, 생산시설 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적은 상태로 로봇이라는 거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ROE 개선을 통해 자동차 주식의 재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동인이다.

어떤 회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증권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5가지 기준으로 살펴 본다. (1) 기술 여부: 자동차 기술을 로봇 기술로 호환할 수 있는지 중요, (2) 양산 능력: 로봇 부품을 생산할 충분한 생산 능력 및 밸류체인 보유, (3) 중국 배제: 중국 자본 및 중국산 부품의 미사용, (4) 현대차그룹 내 밸류체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거래관계 여부, (5) 미국 내 공장: 미국 내 제조 가능 여부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들로 최선호는 현대모비스이고, 잠재적 가능성 기업들로 에스엘/화신/HL만도/현대위아/한국단자 등이다.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2026년 3월 30일 | 산업분석_Update

AI/인터넷

AI 에이전트, 대중화와 함께 경쟁 심화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3월 27일

NAVER (035420)
BUY | TP 350,000원 | CP 212,500원

카카오 (035720)
BUY | TP 75,000원 | CP 48,800원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클로드 사용량 증가, 하이브리드 에이전트 난립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LLM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AI 측정 플랫폼 래리딘(Larridin)에 따르면 앤트로픽 Claude의 DAU가 3월을 기점으로 오픈AI의 ChatGPT를 추월했다. Claude의 사용 세션 수는 지난 1월 중순 대비 약 1,500% 폭증했고 같은 기간 주당 평균 세션 수도 Claude가 ChatGPT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여전히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쟁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각 에이전트가 타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함에 따라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충성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Openclaw와 같이 개별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LLM API를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앤트로픽은 Remote Control과 Computer Use를 연이어 출시, 사용자가 로컬 환경을 모바일 환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구현했다. 3월 공개된 퍼플렉시티의 Personal Computer, 마누스 My Computer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 에이전트가 다수 출시되며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SORA 철수, 오픈AI의 반격 예상

오픈AI는 최근 동영상 생성 도구 'SORA'의 서비스 종료에 더해 출시를 예고했던 성인 모드의 개발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업용AI,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리소스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IPO 추진을 앞두고 Claude의 점유율 침투에 대응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해석한다. Openclaw의 개발자 피터 슈타인베르거를 영입했기에 별도의 하이브리드 에이전트 서비스 혹은 Openclaw와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오픈AI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 심화 속에 필요 투자 금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LLM 기업들도 범용 서비스 확산보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네이버: 전 사업 AI 에이전트 적용, 카카오: 카나나, 카카오 툴즈 출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최근 주주총회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대, 수익화를 강조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전반 AI 에이전트 도입, 건강 에이전트 출시를 예고했으며, 올해 전 직군에 걸쳐 생산성을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2월 쇼핑 에이전트를 적용했고 2분기 AI 탭을 통해 검색 전반으로 확대 예상한다. 카카오는 ChatGPT for 카카오,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카카오 툴즈 기반 에이전트로 고도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ChatGPT 포 카카오 내 카카오 툴즈에 올리브영, 무신사, 현대백화점, 삼쩜삼, 마이리얼트립 등 파트너사들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기능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실적발표에서 지표 공개를 통한 침투율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보유한 로컬 서비스에서의 강점을 아예 반영해주고 있지 않다. 양 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트래픽과 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가파른 리레이팅 기대 가능하다.

국내 기관 은행주 순매수 확대 중

은행 Weekly | 2026.3.3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하락했지만 KOSPI 대비 큰폭 초과상승.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상대적 관점의 방어주로서의 매력 계속 부각 중

- 전주 은행주는 2.4% 하락했지만 KOSPI 하락률 5.9%에 비해서는 3.5%p 초과상승했다. 트럼프의 입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 분위기로 흐르고, 구글의 터보퀀텀 쇼크로 기존 주도주였던 IT업종의 주가 조정 폭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은행주의 경우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상대적 관점에서의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ELS 감경과 관련해 금융위 결론이 아직 나고 있지 않지만 감경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금융당국이 과징금 관련 운영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점도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 전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한때 50%를 웃돌면서 미국 국채수익률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3%로 한주간 4bp 추가 상승했다. 국내 국채금리는 큰폭 추가 상승 중이다.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92%로 한주간 18bp 상승했으며, 3년물은 3.58%로 17bp 상승했다
-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KOSPI를 약 14.2조원 대량 순매도했고 은행주도 약 4,13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시총 비중 대비 매도 강도는 크지 않았던 편이다.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6,520억원 순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은행주는 3,370억원을 순매수했다. 증권 1,900억원 순매수 외에도 연기금 540억원, 기타금융 740억원, 기타법인 420억원 등 고르게 순매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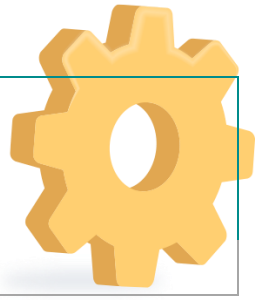
은행별 1분기 예상 DPS. 전년동기대비 20% 상승 예상.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은 하락하겠지만 배당매력 커질 것으로 전망

- 은행들의 배당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1분기 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말이 아닌 5월초일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별 1분기 예상 DPS는 KB금융 1,090원, 신한지주 740원, 우리금융 230원, 하나금융 1,035원, BNK금융 150원, JB금융 300원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수치이며, J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YoY 30%와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JB금융은 중장기 균등배당 지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YoY 증가율이 꽤 높은 편이다. 연간 총배당 증가율이 2.5%로 그다지 높지 않은 KB금융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커지면서 1분기 DPS 증가 폭이 YoY 20%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은행주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배당수익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절대금액 측면에서 그만큼 배당매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금리 상승과 은행주와의 상관관계. 변동성과 리스크 대비 수익률과 편안함 측면에서 은행주 매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던 상황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예 사라진 상황이며, 최근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해 국채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 은행주는 밸류업 이전인 2023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시중금리 사이클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특히 장단기금리차와 은행주가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이 즉각적인 NIM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top-line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채권평가손 발생 가능성 크지만 현재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투자주식 관련익이 이를 상당부분 상쇄), 반면 금리 상승이 자산건전성을 자극해 대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현실화된다고 해도 상당기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상승이 은행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물론 유가가 폭등하면서 기업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한층 더 커질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 시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건전성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상황으로 추정한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금리와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업종간 순환매도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과 편안함 측면에서 은행주의 매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를 제시



아시아 철강 가격 한동안 강세 지속 전망

철강금속 Weekly | 2026.03.3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87만원(WoW, +1.2%), 열연 수입유통가: 85만원(WoW, +2.4%), 철근 유통가: 79.5만원(WoW, +2.6%), 후판 유통가: 94만원(WoW, +1.1%)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15달러(WoW, +0.5%), 중국 열연 유통가: 3,298위안(WoW, +0.3%), 중국 냉연 유통가: 3,788위안(WoW, +0.2%), 중국 철근 유통가: 3,213위안(WoW, +0.1%)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6.4달러(WoW, -1.0%), 한국 스크랩가: 42.4만원(WoW, +0.7%), 호주 원료탄(FOB): 234달러(WoW, +1.7%)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2,046달러(WoW, +0.2%), 아연: 3,117달러(WoW, +2.4%), 연: 1,861달러(WoW, +0.2%), 니켈: 16,995달러(WoW, +1.0%), 금: 4,493달러(WoW, -1.8%), 은: 69.5달러(WoW, +0.3%)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주요 제품 가격 3주 연속 상승, 판재류는 수입산 규제, 봉형강은 감산과 셧다운이 긍정적 작용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 성수기 돌입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
- 산업용 금속가격: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 변화에 따라 금속가격도 변동성 확대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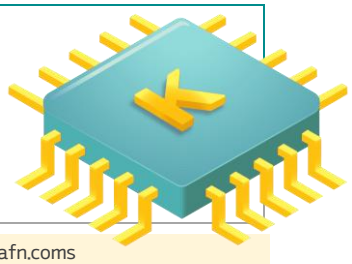
  POSCO홀딩스: 34.3만원(-0.2%), 현대제철: 3.50만원(-6.5%), 세아베스틸지주: 6.95만원(+5.0%), 고려아연: 148.3만원(-6.6%)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43위안(-2.1%), A. MITTAL: 43.51유로(+3.6%), NSSMC: 597.1엔(+0.7%), TATA STEEL: 193.22루피(-1.8%), NUCOR: 163.37달러(+3.0%)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내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철강사들 주가 강세 두드러져….

흔들리는 센티먼트, 견고한 펀더멘털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3.30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s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Turbo Quant로 인한 메모리 수요 우려

- 트렌드포스에서 1분기 및 2분기 메모리 가격을 상향 조정했고, 3분기 가격도 언급했다. 모든 전방산업향으로 메모리 가격이 예상대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지속 상향되고 있다. 하나증권에서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가격 전망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격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전히 추정치 상향 여력이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 코스피 지수는 5.9% 하락해 지난 주 반등 분을 반납했다. 삼성전자는 9.9%, SK하이닉스는 8.4% 하락하며 지수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미국-이란 간 대외 불확실성이 불거진 이후에 지수를 언더퍼폼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양호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 전반의 불안정한 이벤트가 차익 실현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주 하락은 Google의 Turbo Quant 이후에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되었다. 다만, 해당 기술의 실효성 및 보편화 여부, 메모리 및 Capex 효율이 절대 수요량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주가 반응으로 판단된다. 업황 및 실적에 집중한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동반 하락했지만, 폭은 1.7%에 불과했다. 최근 미국-이란 간 갈등 이후에 4주 연속 코스피대비 변동폭이 작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누차 언급중이지만,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코스피보다 작았고, 정부 주도 하의 코스닥 정책으로 인한 수급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중소형 업체들 역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하락과 함께 지수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및 최근의 주가 상승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전망 및 전략: 과도한 우려 반영. 비중확대 전략 유지

-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대외 변수로 인해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Google의 Turbo Quant가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하나증권은 해당 이슈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미국장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한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금요일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속에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반등은 Turbo Quant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일정 부분 소화되었다고 판단한 결과물이라 해석된다.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Turbo Quant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 주가 역시 부정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해당 이슈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되고, 신규 Fab 완공 이후에 설비 투자 관련 기대감에는 변함이 없다. P4 및 M15x의 신규 투자로 인해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지속 눈여겨 봐야 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4,345,976	5,439	-5.9	-12.9	29.1	-48.4	-13,764.9	12,161.8	18.6	8.5	1.8	1.5
코스닥	632,233	1,142	-1.7	-4.3	23.3	-244.5	-242.8	525.8	56.8	32.3	4.1	3.4
삼성전자	1,063,759	179,700	-9.9	-17.0	49.9	-876.9	-7,685.1	6,833.8	7.3	6.4	2.1	1.6
SK하이닉스	657,112	922,000	-8.4	-13.1	41.6	-73.4	-2,778.8	2,780.2	4.9	4.4	2.6	1.6
주성엔지니어링	3,254	70,000	-3.9	24.8	152.7	-17.9	-75.5	89.4	38.1	22.0	4.8	4.0
피에스케이	2,378	82,100	-5.0	28.1	122.5	-11.4	8.7	2.9	22.6	18.0	3.7	3.1
피에스케이홀딩스	2,150	99,700	-10.5	14.3	115.3	-15.8	16.1	-0.1	20.5	17.2	3.7	3.1
파크시스템스	1,788	255,500	-6.4	-11.4	22.3	3.1	-9.6	6.4	32.0	25.6	6.3	5.1
씨엠티엑스	1,384	145,500	-3.8	-5.5	45.7	5.4	0.6	-5.1	19.7	16.4	10.4	6.4
테스	1,179	60,900	-7.5	-17.3	36.7	3.0	0.2	-3.2	15.2	12.3	2.5	2.1
브이엠	1,091	44,700	-6.2	7.5	48.0	0.9	-1.7	0.5	21.0	16.5	5.4	4.2
원익머트리얼즈	530	42,000	-1.6	-9.5	35.9	2.1	3.9	-5.5	9.6	8.6	0.9	0.9

자료: 하나증권

이란 전쟁 장기화 전망 우세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3.3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이란 전쟁 장기화 전망 우세

- **총평**

- WTI 99$, Dubai 122$. 정제마진 주간 39$, 일간 64$로 역대 최대. 납사 보합이나 아세톤 +17%, BD +12%, 프로필렌 +9% 등 강세. 패닉바잉 때문. 역대급 혼란. 사태 지속 시 결국 글로벌 공급망 파괴 불가피. 조속한 사태 해결 이외에 답은 없음
- 4월 중순 이후 아시아 에너지/화학 업체 원료 확보 진통 예상. 글로벌 공급망 혼란 예상. 보수적 대응 필요. 추천종목 없음

- **이란 전쟁 장기화 전망 우세**

- **세계 최대 에너지 포럼 CERAWeek 2026 참석(3/23~27). 다양한 주제 불구, 단기 이슈가 이란인 만큼 해당 이슈 위주 우선 정리**
- **이란 전쟁 장기화 시각 압도적으로 우세:** 총 3개의 세션, 총 8명의 패널 토론 참석. 26대 국방장관(2017~18) 제임스 매티스, 전 4성 해군제독 제임스 엘리스가 대표적. 이외에 국무부 수석고문, 교수 등 각종 중동 전문가 참여. 모두 쉽지 않은 협상 전망
- **길을 잃은 중동 정책, 그리고 전략적 목표의 부재:**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에는 중동 개입 최소화를 명시, 현실은 이란과 대규모 군사적 충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초기 목표였던 무조건 항복이나 정권교체는 비합리적이었으며 현재는 목표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또한, 항공전력만으로는 역사상 전쟁을 종결시킨 사례가 없다고 언급
-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가능성 낮아:** 방대한 해안선(600마일 페르시아만 내부, 100마일 해협, 오만만 일부로 구성)에 걸쳐 대비하기가 어려움. 순항미사일은 100마일 내에서 발사 가능하며, 고속정, 기뢰 등을 보유해 지속적으로 상선 및 군함에 대한 위협 가능. 심지어, 현대 기뢰는 플라스틱 재질로 해저에 설치되어 탐지가 어렵고 제거가 쉽지 않아. 미국 해군이 걸프 내부에서 작전하지 않는 이유. 기술적으로 실행은 가능. 이 모든 위협에 24시간 경계가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워. 미 해병대 투입만으로는 전쟁 종결이 충분치 않으며, 지상 작전과 장기적 개입 필요
- **협상 가능성도 낮은 편:** 이란의 요구 사항은 미국/이스라엘이 수용하기 극도로 어려운 수준. 향후 최소 2년 간 이란에 대한 전쟁 불가 보장, 전쟁 보상금(통행료 징수권 및 제재 해제), 미군 기지 철수 등. 협상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스라엘의 반발과 지리멸렬한 협상 과정이 문제로 지적. 게다가, 이란과의 성공적 외교 협상은 역사상 단 2건에 불과. "이란은 200년 간 전쟁에서 이긴 적도 없지만, 협상에서 진 적도 없음". 이란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확전하거나 소모전을 통해 버틸 의지가 있음. 동맹을 통해 경제적 해법을 강력하게 제시해야만 할 것
- **중동 국가들의 배신감과 중국의 부상. 내부 정권 교체도 힘들어:**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협의 부족에 매우 격분(furious)한 상태. 사우디아람코 CEO는 매년 참석했으나, 이번에는 화상으로도 불참. 2019년 아람코 공격에 이어 이번에도 미군기지가 자국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 전쟁이 애매모호하게 끝나면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 이 과정에서 중재인을 중국이 자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의 걸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 우려 사항. 이란이 중국 해군 기지 등을 언급하며 반미 3국 축(이란-러시아-중국) 구축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오만을 제외한 걸프 국가들은 지상군 투입에 따른 확전, 일방적인 승리 선언 이후에는 이란의 강경파가 체제에 남는 것을 가장 우려. 야당이 권력을 잡을 경로도 없으며, 국민의 불만은 많으나 탄압의 강도가 강해 혁명 가능성도 낮기 때문
- **호르무즈의 극적인 개방 시에도 정상화 과정 필요:** 만선 상태의 유조선이 우선 통과를 하고, 빈 유조선이 들어와 가득 찬 탱크를 비워내는 과정까지 이뤄져야 산유국의 원유 생산이 가능. 선박의 아시아 운항이 4주 소요된다는 점, 걸프지역 내 정제설비 30~40%가 타격을 입어 정상화에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전망 등을 종합할 때, 공급망 정상화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 게다가, 해협 개방 시 통행의 우선 순위는 원유/가스가 1순위이며,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나 납사 등은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아. Dow Chemical CEO은 정상화까지 250~270일(약 8~9개월) 소요될 것이라 전망
- **결론: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체 보유 원재료는 4월 중순이면 크게 소진될 것. 입항 기간 4주를 감안하면 4월 중순~말부터 가동률 조정 가능성 대두되기 시작. 비축유 의존되는 정유가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대비 나으나 주가는 이와 상관없이 리스크를 선반영하기 시작할 전망. 사태 해결 전까지 추천종목 없음. 미국 원유/정유/가스 밸류체인만 유리**

(이어서)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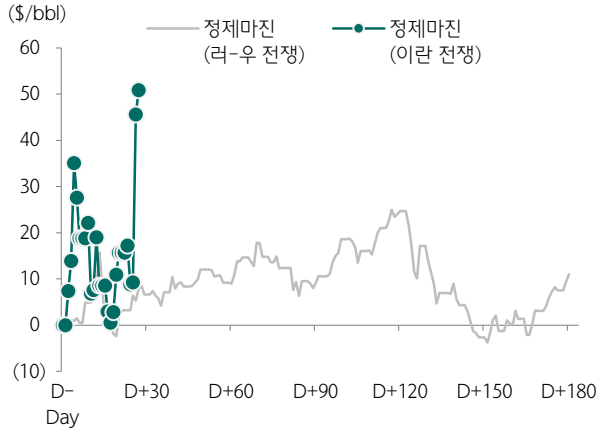
- **홍해에 대한 위협으로 확전: 에너지 산업 Update(5)**

- **홍해에 대한 위협으로 확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을 공식화하며 사실 상 참전. 이에 따라, 홍해/바브알만데브해협 물류 리스크 확대. 같은 날 미 해병대도 중동에 도착했고 추가 증원도 진행 중. 이란은 사우디 미군 공급기지도 피격하며 확전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파키스탄이 사우디/튀르키예/이집트와 함께 중재 회담에 들어갔으나, 이란은 신뢰도를 언급
- **원유 시장 영향:** WTI와 Dubai는 각각 99.6$(WoW +1%)와 122$(-23%) 기록
- **석유제품 시장 영향:** 정제마진 39.1$/bbl(WoW +20$). 유럽 디젤 선물 가격 +2%. 원유 시장보다 석유제품 시장은 더 큰 혼란
- **가스 시장 영향:** 아시아 JKM -10%, 유럽 TTF -10%. 미국 Henry Hub 보합
- **석유화학 시장 영향:** 납사 보합 Vs. 아세톤 +17%, 부타디엔 +12%, 프로필렌 +9%, 가성소다 +8%, SBR +6%, PE/PX +5%

도표 1. 정제마진 역사적 최대치. 역대급 혼돈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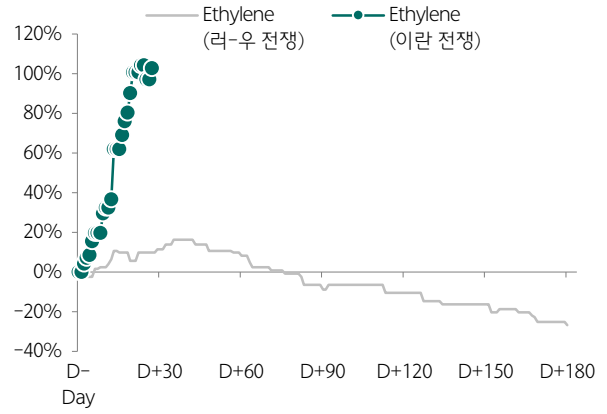
자료: Petronet, 하나증권

도표 2.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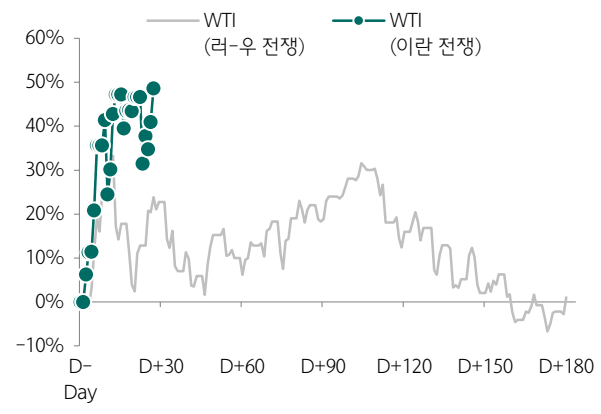
자료: Petronet, 하나증권

도표 3. 에틸렌 가격 추이



자료: S&P Platts, 하나증권

도표 4. 유가 WTI 추이



자료: Petronet, 하나증권

수급보다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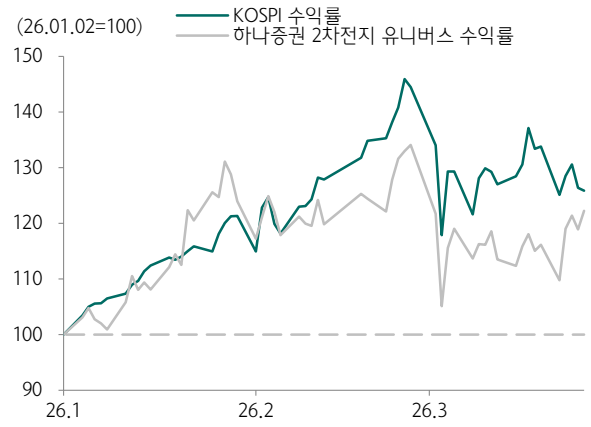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3.3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ESS 관련주 선별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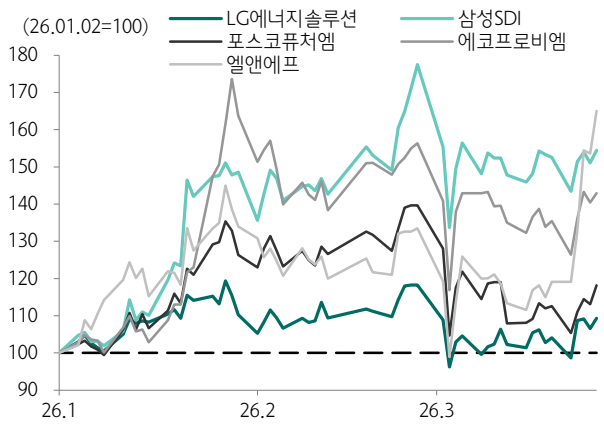
-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규모 및 시기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수혜 확고하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오버행 이슈로 선뜻 매수하지 못하는 기류가 강하다.
- 그럼에도 지난 3주간 LG에너지솔루션은 +10% 상승하며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다. 이란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ESS 조합에 대한 기대감(태양열은 호르무즈를 건너지 않는다 : https://vo.la/uMJ9GZg)과, 이에 기반한 미국 보수 진영의 태양광 우호 기류(MAGA의 변심과 배터리 : https://vo.la/PuH0M9A) 등이 영향을 주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이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 매도 물량 출회에 예상되는 수급 이슈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희석을 야기하는 신주 발행이 아니라면 가격 매력이 있을 때 매수로 대응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90조 내외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구간(2028년 예상 순이익 3조원 및 24M Fwd P/E 상단 40배 적용 120조원 타겟 시총 고려)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2월 글로벌 ESS 설치량 YoY +46% 증가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 힘입어 2026년 연간 ESS 부문 매출 전년 대비 3배 증가 예상된다. 삼성SDI 역시 ESS 부문 매출 YoY +50% 증가하며 수혜 확대될 전망이다. ESS 수혜 확고한 셀 메이커와 LFP 관련 소재 수혜 확고한 기업들 위주 매수를 권고한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엘앤에프, 더블유씨피 등).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클래리티 액트와 금리, 단기 불확실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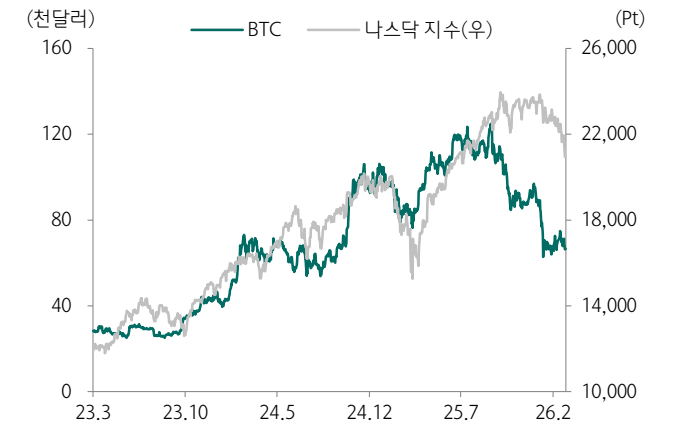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I 2026.3.3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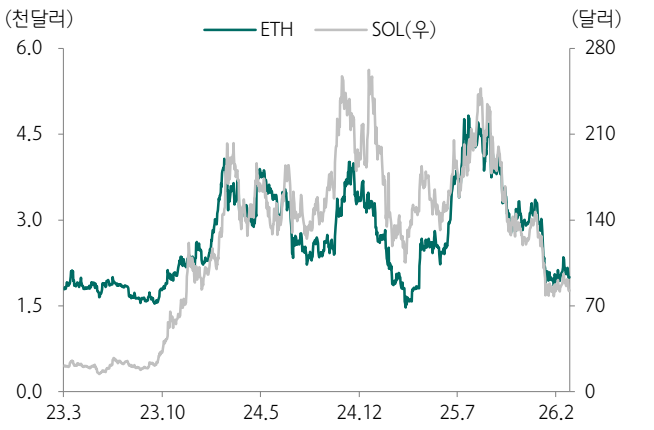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3/22~28 동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되며 전체 시가 총액이 약 -4.9% 하락했다. 주요 코인들의 수익률은 BTC -1.6%, ETH -2.4%, SOL -4.1%를 기록했다. 클래리티 액트 절충안으로 제도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 문구를 두고 코인베이스가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 또한 이란 전쟁 관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로 인한 자산 가격 변동을 디지털자산도 피해가지 못했다. 17일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규제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장에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클래리티 액트의 지연으로 단기간에 디지털자산이 매크로 환경과 개별적으로 상승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기에 AI 에이전트, 토큰화 경제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구조적 반등 전망 유지한다.
- 클래리티 액트 절충안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출도가 높은 서클(-25.7%, 코인베이스(-18.4%)가 급락했다. 전통 금융권의 예금 보호를 위한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됨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원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 연간 3.5%의 보상을 제공하여 USDC 보급을 촉진해왔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보상이 금지될 시 단기간 코인베이스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USDC, DeFi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클래리티 액트의 향방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 역시 부진했다. 특히 서클과의 CPN 파트너십으로 주목받은 헥토파이낸셜이 -33.6%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PG사들(NHN KCP, 다날)도 -10% 이상 하락했다. 아이티센글로벌은 금 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23.7%를 기록했다. 해당 기업들은 국내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왔다는 점에서 해외 규제 불확실성과 국내 법제화 지연 우려가 동시에 디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1분기 입법 타임라인을 지키지 못했고 향후 일정도 명확하지 않기에 단기 투심 반등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어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3.27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팔란티어,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팔란티어(PLTR.US):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 금주 WSJ, 배런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Golden Dome'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팔란티어, Anduril 등의 참여를 공개
- 골든 돔 프로젝트는 우주 기반 다층 방어체계 구축안으로 2025년 초기 자금 244억 달러를 배정 받았고, 2035년까지 총 예상 비용 약 1,850억 달러 규모의 방어체계 구축안
- 202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센서와 위협 추적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사항
- 주목할 점은 AI 및 자동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방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달리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구조라는 점
- 올해 여름까지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테스트 성공 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전망
- 우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비장의 소스'이며 골든돔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장군실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는 점 시사
- 1단계 프로그램 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사업 기회가 예상되며 골든돔 프로젝트가 미국 우주산업과 국방 시스템 전반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면 팔란티어 정부향 사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미국 우주 산업

우주 업황 포커스: NASA 달 표면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 전환, 수혜주 찾기

- NASA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개발을 중단하고,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집중하는 아르테미스 수정안을 발표. 향후 6년간 달 표면 인프라 구축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1단계(2026~2028년)는 CLPS(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임무 빈도를 늘려 달 남극 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단계(2029~2031)는 대형 화물 착륙선을 투입하여 통신, 내비게이션, 전력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 이를 위해 기존 대비 개발을 간소화한 LTV(달 지형 차량)와 표면 이동용 소형 드론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달 표면 착륙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CLPS 관련 수혜주는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이며 2단계부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역할이 확대될 전망. 간소화된 LTV 입찰에서는 기존 타당성 연구 단계에 선정된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루나 아웃포스트(비상장), Astrolab(비상장)이 수주 경쟁을 하고 있음. 표면 인프라(통신, 전력, 건설) 구축 관련해서는 로캣랩(RKLB), 레드와이어(RDW) 등이 수혜가 기대

글로벌 에너지

첨단 무기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 희토류 영구자석은 모터와 레이더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첨단 무기의 핵심 구성요소
- 홍콩 SCMP는 최근 전쟁 이후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며 미국 희토류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증가
- 희토류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말라카 해협으로 주로 운송되어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 공급망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여전히 미국의 중국 여전히 의존도가 높아(71%) 전쟁 종료 이후의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자율주행 밸류체인 실적 개선 속 성장 모멘텀 강화

Hana China Weekly | 2026.3.27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위라이드(WRD.US): 4Q25 실적: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 상회, 순손실 축소

- 4Q25 매출은 7.51억위안(YoY +46.1%)으로 컨센서스 17.2% 하회하였으나, 순이익은 1.0억위안을 기록, 사상 첫 분기 흑자 달성(4Q24 -1.3억위안)에 성공,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 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 GPM은 28.5%(YoY +6.4%p)까지 상승, 수익성 구조 개선이 확인.
- 특히 로보틱스 LiDAR 출하량이 22.1만대(YoY +2,565%)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 해당 부문 매출은 3.5억위안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기존 ADAS 중심에서 로보틱스 중심으로 성장 축 이동이 뚜렷해짐. 한편, LiDAR 단가가 약 2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적용 영역이 전기차에서 로보틱스, 이륜차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2026년에는 ADAS와 로보틱스 부문 간 매출 기여도가 보다 균형을 이루며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허사이테크(HSAI.US): 4Q25 실적: 매출 하회하였으나 순이익 연간 첫 흑자 달성

-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0.3억 위안(YoY +45.8%)으로 컨센서스 3.9% 하회하였으나, 순이익은 4.4억 위안 기록,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 LiDAR 출하량은 162만대(YoY +222.9%)로 급증, 이 중 ADAS용 LiDAR 138만대(YoY +202.6%), 로보틱스용 LiDAR 23.9만대(YoY +425.8%)로 로봇향 수요가 빠르게 확대. 다만 제품 믹스 변화(ADAS 비중 확대)로 GPM은 41.8%(YoY -0.8%p)로 소폭 하락.
- 허사이테크는 중국 상위 10개 완성차 업체와 설계 수주 확보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10만위안 이하 대중형 차량 및 이륜차까지 라이다 적용을 확대 중. ASP는 4Q25 기준 1,600위안(YoY -51%, QoQ -12%) 하락. 이는 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변화 영향으로 판단. 2026년 LiDAR 출하 가이던스 300만~350만대 제시하였으며, 생산능력은 연간 4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1Q26 매출 가이던스 6.5억~7억 위안으로 제시.

AI: 빅테크 중심에서 신흥 AI 기업으로 주도권 가속

- 중국 AI 산업에서 기존 빅테크와 신흥 AI 스타트업 간 주도권 재편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최근 미니맥스(0100.HK)는 홍콩 상장 이후 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며 한때 바이두(9888.HK)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등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였음.
- AI 경쟁 구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바이트댄스의 챗봇 'Doubao'는 기존 빅테크(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사용자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Zhipu AI(2513.HK)는 독립 평가 기준 중국 최고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LLM)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음. 이에 따라 MiniMax와 Zhipu 등 AI 기업들은 상장 이후 세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3/30	179,7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기아 (000270.KS)	3/30	155,800	신규	-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KB금융 (105560.KS)	3/30	152,200	신규	-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3/30	435,000	신규	-	•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M/S 반등 가능성 높아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3/30	320,500	신규	-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3/30	134,500	신규	-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삼양바이오팜 (0120G0.KS)	3/30	142,600	신규	-	• 최근 유전자치료제 테마와 함께 전달체 기술을 보유하여 주목 받고 있음 • 신약개발 추진, 항암제 매출 확대, 의약품 중장기 포트폴리오 확대 기대
RFHIC (218410.KQ)	3/30	82,400	신규	-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더블유씨피 (393890.KQ)	3/30	13,490	신규	-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제테마 (216080.KQ)	3/30	8,140	신규	-	• 필러·톡신을 모두 보유한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 중국 등 해외 신규 허가 효과 더해지며 수출 성장성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73%	+6.51%p	+55.09%	+26.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9	98,000	98,100	0.10%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3/9	353,500	343,000	-2.97%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4,500	1.64%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RF머트리얼즈 (327260.KQ)	3/9	51,900	68,000	31.02%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52,200	1.94%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35,000	7.41%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5,800	16.97%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79,700	49.8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22,000	41.63%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86,500	63.02%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77%	+1.91%p	+30.77%	+1.9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6,230	-11.3%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955	-7.9%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170	-4.7%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145	55.0%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4.95	-1.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61.52	34.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80.84	12.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33	8.7%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29	3.30	3.31	4.1	4.2	4.3	4.4
		▪ 일본 2월 실업률 (E--, 1월 2.7%) ▪ 중국 3월 제조업 PMI (E--, 2월 49)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잠정) (E--/--, 2월 0.6%/1.9%)	▪ 한국 3월 전년동기대비 수출 (E--, 2월 28.70%) ▪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2월 52.1) ▪ 미국 3월 ADP취업자 (E--, 2월 63K) ▪ 미국 2월 전월대비 소매판매 (E--, 1월 -0.20%) ▪ 미국 3월 ISM 제조업 (E 52.2, 2월 52.4)	▪ 한국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0.3%/2.0%) ▪ 미국 2월 4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3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E 51K, 2월 -92K) ▪ 미국 3월 ISM 서비스 지수 (E 55.5 2월 56.1)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E--, 이전치 $3,427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E--)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E--/--,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E--,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